

특허로 키운 K-헬스케어, 글로벌 진출 날개 단다

- 특허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 방문,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5.23)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23.(금) 16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버엑스(주)(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지식재산(IP) 기반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특허로 R&D 지원*’,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지재산 확보·활용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특허로 R&D) 특허 등 지재산 정보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발 초기 단계에 국내외 특허동향, 해외기업 선점특허 등을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의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

에버엑스는 2019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근골격계 분석 및 재활운동 솔루션 ‘모라(Mora)’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허로 R&D, 분쟁대응 전략 등 지식재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연구개발 수행과 분쟁 예방 설계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 보호와 사업 확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도적 지식재산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와 전략적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기업(에버엑스) 현장방문 계획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현철 (042-481-8254)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김철호 (042-481-8469)

□ 방문 개요

- (방문기업) 에버엑스(EverEx) (설립 : '19년 8월)

-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 (제품/사업) 재활 소프트웨어(Mora) / AI 기반 근골격계 분석 및 재활운동 솔루션 개발 등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24 기준) : 총 83건(특허 39건, 상표 25건, 디자인 19건)

- (일시/장소) 5.23.(금), 16~17시 / 에버엑스 본사(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 (방문 내용) 특허청 지원 사업* 성과 점검 및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 특허로 R&D 지원('24),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23, '24)

□ 주요 참석자 및 세부 일정

- (특허청) 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 등
- (에버엑스) 윤찬 CEO 등 / (특허전략개발원) 윤병수 원장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		참석자 소개	
16:00~16:03	(3')	인사 말씀	특허청장, 기업 대표
16:03~16:08	(5')	기업 소개	에버엑스
16:08~16:20	(12')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특허 동향 및 특허로 R&D 기업 지원 사례 발표	전략원
16:20~16:55	(35')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참석자
16:55~17:00	(5')	재활 소프트웨어(키오스크) 시연	참석자